

三唐派 白玉峯의 佛教詩 世界

金 美 善*

<目 次>

- | | |
|---------------|---------------|
| I. 問題의 提起 | III. 白玉峯의 佛教詩 |
| II. 儒佛交遊의 詩意識 | IV. 結論 |

<국문 초록>

본 논고는 三唐派 白玉峯의 佛教詩 世界를 고찰하였다. 唐詩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시풍을 송시풍에서 당시풍으로 정착시킨 옥봉의 시 세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唐詩의 사상적 배경이 佛教가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천착하여 삼당파 옥봉의 시세계에서 불교적 사유의 세계를 찾아보고자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옥봉시 연구는 삼당파 시인으로서 唐詩의 詩風을 잘 본받아 唐詩와 섞어 놓아도 구분 할 수 없는 경지의 면모들을 면밀히 고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李白·王維의 禪詩의 세계관에 근접한 禪趣의 佛教詩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본 논고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 옥봉의 불교시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시문학사에서의 儒佛交遊의 詩意識을 고찰하였고, 백옥봉의 불교시 세계에서 佛教의 禪趣가 담긴 시세계를 ‘佛教의 交遊·儒佛의 反觀·船子の 觀水·白雲의 無心’으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禪家의 佛教禪詩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으며 옥봉뿐만

* 청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 hawoodang@hanmail.net

아니라 많은 유학자의 작품에서도 불교의 禪旨가 담겨져 있는 것에 관점을 두어왔다. 한 작가의 작품을 온전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두루두루 통해야만 원만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唐詩의 사상적 배경과 우리나라 三唐派 시인의 작품 배경이 되는 사상의 일면을 불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옥봉의 시에는 많은 불교적 선취가 들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三唐派 시인 중에 玉峯 뿐만이 아니라 孤竹·蓀谷의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佛敎詩에 대한 조명을 후고로 두며 불교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대한다.

【주제어】 三唐派, 白玉峯, 佛敎詩, 白雲, 無心

I. 問題의 提起

본 논고는 三唐派 詩人으로 불리는 玉峯 白光勳(1537-1582)의 시세계에서 佛敎詩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佛家에서 바라밀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걸림 없이 自由自在한 不二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가의 바라밀의 경지, 즉 得道라는 것은 儒家의 修身을 통한 止於至善의 경지와도 不二의 상관관계 속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儒·佛家의 선현의 삶이 文學과 禪을 不二一如로 한 產物 속에서 다양하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不二思想的 背景의 詩文學 產物을 고찰할 때, 그 배경이 되는 또 하나는 儒佛을 겸하여 파생된 儒佛不二의 시세계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논점을 본고에서는 백옥봉의 불교시 세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옥봉은 우리 한국 한시사에서 송시풍에서 당시풍으로의 전환기에서 옥봉 당대의 정신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당시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漢詩史의 穆陵盛世期에 활발히 활동한 주요 인물이다. 지금까지 백옥봉시에 대한 연구는 시문학 전공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연구되어 왔다.¹⁾

그러나 唐詩의 風格을 수용한 삼당파 시인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 李白·杜甫·王維 등에 귀결하게 된다. 중국 불교사에서 당나라 불교를 빼놓을 수 없듯 불교가 왕성한 시대적 배경에 詩仙으로 불리워진 李白과 詩佛로 불리워졌던 王維의 시풍은 佛敎와 禪의 세계관이 작품 곳곳에 녹아져 있음을 널리 살펴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옥봉시 연구는 삼당파 시인으로서 당시풍의 主情的인 詩風을 잘 본받아 唐詩와 섞어 놓아도 구분 할 수 없는 경지의 면모들을 면밀히 고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李白·王維의 禪詩의 세계관에 근

-
- 1) 최낙원, 「玉峯 白光勳의 漢詩 研究」,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안병학, 「白光勳 詩 小考」, 『어문학총』 제27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 최낙원, 「玉峯 白光勳의 情懷詩 研究」, 『한문학론집』 제6집, 단국한문학회, 1988.
 -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영국, 「白玉峯의 五言絶句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1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 _____, 「白玉峯의 七言絶句에 대하여 - 素材 ‘夕陽’을 中心으로」, 『인문과학연구』 제12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 _____, 「白光勳 詩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3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 정병홍·임채용, 「三唐詩人 白光勳의 漢詩」, 『순천대학교논문집』 제10집, 순천대학교, 1991.
 - 김영국, 「玉峯 白光勳의 詩 研究」, 원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유현숙, 「玉峯 白光勳論」, 『석당논집』 제19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3.
 - 임채용, 「白光勳의 作品世界」, 『중국어논총』 제6집,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1993.
 - 김중서, 「玉峯 白光勳 詩 研究」,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재복, 「옥봉 백광훈 연구」, 『세종어문연구』 제7집, 세종대학교 세종어문학회, 1994.
 - 김중서, 「玉峯 白光勳 詩의 風格」, 『한국한시학회』 제3집, 태학사, 1995.
 - 차경화, 「玉峯 白光勳의 交遊詩 研究」, 동아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종훈,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 研究 - ‘淸’과 ‘淡’의 特質을 中心으로」,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중서, 「玉峯 白光勳과 湖南詩壇의 交遊」, 『한국한시연구』 제10호, 태학사, 2002.
 - 권순열, 「옥봉 백광훈 연구」,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천부성, 「玉峯 白光勳의 詩研究」, 청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접한 禪趣的 佛敎詩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본 논고의 문제 제기에 두기로 한다.

물론 한 작가의 작품연구에 있어서 모든 관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점은 또한 연구자의 정서나 관심을 두는 연구의 방향 설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佛敎의 禪詩를 연구 과제로 삼아오며 儒家의 백옥봉시를 공부하던 자에서 禪家의 禪趣와 不二한 경지를 느끼는 옥봉의 佛敎詩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본고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본론에서 옥봉의 불교시를 고찰하기 전에 우리 한시문학사에서 儒佛交遊의 詩意識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옥봉의 불교시를 ‘佛家의 交遊·儒家의 反觀·船子の 觀水·白雲의 無心’으로 細分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儒佛交遊의 詩意識을 고찰하기로 한다.

II. 儒佛交遊의 詩意識

우리 한문학사에서 유불의 대립에 따른 佛家 한문학 작가의 대응방식이 다양화되었다. 그러한 작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²⁾

- ① 墨名而儒行者
- ② 墨名而墨行者
- ③ 墨名而儒行而墨心者³⁾

2) 金美善, 「艸衣 張意恂의 詩의 研究」, 誠信女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pp.33-34. 참조.

3) ‘墨’은 ‘墨子’를 가리키는 말이나 異端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도 쓰이며, 여기서는 불교승려를 가리킨다. 韓愈가 「送浮屠文昌師序」에서 이 말을 썼다. 朝鮮後期の 文集 序·跋文에 보면, 작가의 유형을 볼 수 있다. 그 예를 들어보면, 李紀淵의 「月荷上人文集序」에서는 “墨名儒行”이라는 표현을 했고, 南基卜의 「月荷上人遺集跋」에는 “心儒者”라는 표현이 있다. 丁若

① 신분은 승려이나, 사회적 요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가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마음까지 돌아선 경우이다.

② 승려로서 수행에 충실하고 경지가 높으며, 문학은 격률이나 형식에 얽매임이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으면서도 넘쳐나는 禪旨를 읽을 수 있다.

③ 승려의 신분으로 유가의 사상에 능통하고 유가적 가치지향에 준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이면으로는 불교 사상을 더 깊이 공부하고 불교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선사의 진면목을 읽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명백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변이형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을 제기하며, 여러 禪僧들의 시문학을 통해 ‘跡禪而心儒者’⁴⁾라는 또 다른 작가유형을 볼 수 있다. 한 예를 들자면 『一枝庵詩藁』 景刊「序」에서 조선후기 艸衣 스님을 ‘跡禪而心儒者’라고 표현한 것을 미루어 보아 ‘跡禪而心儒者’는 승려의 신분으로 無碍한 禪의 행적 속에 儒者와의 교유와 儒家의 학설에도 식견이 넓은 경우를 말한다 하겠다. 이렇게 유불을 두루 융섭하여 실천적 모습을 보여준 ‘跡禪而心儒者’한 승려의 면모를 볼 수 있듯이 유학자의 모습에서도 다음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 ① 儒名而儒行者
- ② 儒名而墨行者
- ③ 儒名而墨行而儒心者

① 유학자로서 修己治人の 爲己之學을 하는 道學者의 유형이라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학을 종통으로 한 많은 문인들의 행적이 있다.

鏞의 『與猶堂全書』 1집 17권 「兒菴藏公塔銘」에도 “墨名儒行君子”라는 표현이 있다.

4) 필사본2 『一枝庵詩藁』 景刊「序」에서 艸衣를 “跡禪而心儒者”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유사한 작가유형의 표현으로 『伽山藁』 權濩의 「月荷上人遺集序」에 月荷上人을 표현함에 “心儒而跡佛者”라 하였다.

② 신분은 유학자이나 사회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유가의 바람직한 이념이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 사회에서 불가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마음까지 돌아선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전기의 김시습을 들 수 있다. 그는 과거준비로 三角山 中興寺에서 수학하던 21세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대권을 잡은 소식을 듣자 그 길로 삭발하고 중이 되어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 이후 다시 환속하여 벼슬길로 나아갈 의도를 갖기도 했으나 현실의 모순에 불만을 품고 다시 은둔 방랑을 하다가 충청도 無量寺에서 59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으니 儒名而墨行者의 삶으로써 그의 문학작품에도 佛家의 情緒 思想이 많이 들어 있다.

③ 儒名而墨行而儒心者의 경우는 유학자로서 불가의 사상에 능통하고 깊이 심취 하면서도 유학자로서의 면면한 모습을 간직한 유불을 넘나드는 학자에서 볼 수 있으니 조선후기 추사 김정희의 행적에서 볼 수 있다. 특히 金正喜는 艸衣와 龜岩寺의 白坡를 상대로 禪論을 전개함에 그 견해를 같이 했다. 白坡와 艸衣간의 禪論爭에 관여하면서 金正喜는 白坡가 강설에는 疏鈔에 난숙하여 口海의 물결이 뒤집히듯 말이 화려하고 많으나, 淺深은 아직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은 艸衣와 견해를 같이 함을 말하고 있다.⁵⁾ 이처럼 金正喜는 艸衣와 선과 차에 대한 기본맥락을 같이 하며 艸衣는 金正喜에게 茶와 禪의 세계를, 金正喜는 艸衣에게 詩, 書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金正喜는 艸衣 그 밖의 여러 高僧들과 깊은 교류를 가지므로 儒佛을 융섭한 不二法門을 스스로 실천한 사례라 하겠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교와 유교를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으로 여기지 않고 儒佛不二의 融涉을 보여준 “跡禪而心儒者·跡儒而心禪者”의 자취를 우리 漢詩史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5)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5, 「其十一」 참조, “白坡老狡獪所纏繞也 此老亦於說講 爛熟疏鈔 口海爛翻 至於禪理 寔未知其深淺 …(中略)… 帶來其老師書 一再見而已 此等錦心繡口 滔滔盈盈 所經歷已多 不可方物耳 師之禪 在金仙又在頭輪 外此更無禪耳”

다음에선 이러한 儒佛交遊의 詩意識을 바탕으로 백옥봉의 시세계에서 佛敎의 禪趣가 담긴 시세계를 ‘佛敎의 交遊·儒佛의 反觀·船子の 觀水·白雲의 無心’으로 세분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Ⅲ. 白玉峯의 佛敎詩

1. 佛家の 交遊

백옥봉의 작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교유시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僧侶와 交遊한 작품이다. 백옥봉은 전남 장흥에서 출생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古刹이 성장 배경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옥봉의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찰을 찾아보면, 白蓮社·寶林寺·雙溪寺·奉恩寺·岡泉寺·頭輪寺·北辰寺·西林寺·蓮臺菴·蓮花菴·定惠寺·海臨寺·弘慶寺·北庵·剛川寺·洛山寺 등의 사찰이 있다.

이곳 사찰에서 수행한 승려와 시를 수창한 衲子들은 思峻·道演師·信堅·尙上人·衍上人·修上人·雪峻·印思·性元·太尙上人·義衍師·秀華沙彌·行思上人·處敏上人·天鑑·處英上人·道文上人·弘印上人·圓澈上人·正仁師·桂熙·智衍上人·水澄·靈印長老·雲水·天靈·安上人·靜安上人·佛慧長老·雪洵上人·片雲上人·性眞師·圓澈·智楫·元上人 등의 35여명의 승려를 옥봉의 작품 속에서 볼 수 있으니 옥봉의 정신적 사상적 배경은 儒佛의 경계를 이미 초월한 不二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옥봉의 불가 승려들과 교류한 시 내용을 보면, 먼저 「贈圓澈 澈公求詩甚勤 走筆贈之」이다.

山人不出山	산사람이 산에 살며 나오지 않다가
出山亦何事	산을 나온 것은 무슨 일인가?
怪汝風雪中	괴이하게 그대 풍설 속에서
遠踏人間地	멀리 속세사람 사는 곳 밟으니

貧居正蕭瑟	가난한 삶 정작 소슬도 한데
來訪獨何以	오신 것은 홀로 무엇 때문인가?
便抽袖中紙	곧 소매 속 종이 꺼내어서
因說巖棲致	산 속 암자 산다고 말을 하네
一食動經旬	한 끼 밥으로 열흘을 보내고
一衣堪踰紀	한 벌 옷으로 한해를 견딘다네
我何求於公	내 그대에게 무엇을 구하리오?
求公一句爾	그대에게 구할 것은 한 구절 시
顧我非詩者	나를 돌아보니 시 짓는 이도 못되고
詩又不在此	시 또한 이곳서 짓지도 못하네
何處多名山	어느 곳에 명산이 많을까?
何山多好水	어느 산에 좋은 물이 많을까?
一筇與爾俱	지팡이 하나로 그대와 함께라면
千里復萬里	천리 만리 길도 갈 수 있으리
秋月照無雲	가을 달 비치면 구름 걷히고
春花發如綺	봄 꽃 피면 비단에 수놓은 듯
山奇盡仙景	그런 산 모두 신선의 경지요
水異皆詩思	그런 물 모두 시사가 있으리니
然後書爲篇	그런 곳에서 시편을 이룬다면
足以聽汝耳	족히 그대에게 들려 줄 수 있으리 ⁶⁾

라고 하였다. 원철스님이 시를 구하여 붓을 내달려 쓰노라 라고 하였으니, 원철스님과의 교분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작품 속에서 “一食動經旬 一衣堪踰紀”라고 하며 一依一鉢의 無所有의 스님을 칭송하며 名山에 雲水行脚하는 스님을 따라서 라면 나도 지팡이 하나 의지해 어디든 가고 싶다라고 하였다. 봄꽃이 피면 비단에 수놓은 듯한 그런 산 그런 물에는 모두 詩思가 있을 것이니 이러한 산수자연을 함께 주유하고 시를 지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마치 당나라 이백의 「山中問答」 속에 있을 듯한 무릉도원을 원철스님이 있는 수행처로 은유하는

6) 白光勳, 『玉峯集』 卷下, 「贈圓澈 澈公求詩甚勤 走筆贈之」

듯 하다.

問余何事栖碧山 무슨 일로 청산 사나 물어 오길래
 笑而不答心自閑 웃고 대답 안 해도 마음 절로 한가해
 桃花流水杳然去 복사꽃 흐르는 물에 아득히 흘러가니
 別有天地非人間 별유천지요 인간세상 아니로구나⁷⁾

이백의 別天地는 복사꽃 떠나려 오는 시내를 따라가서 武陵桃源에 이르듯 혼탁한 세상을 떠나 자연에 몰입한 物我一體의 경지요 禪佛敎的 禪趣를 느끼게 한다. 三唐派 시인으로서의 백옥봉의 작품을 당시풍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意趣를 옥봉이 교유한 圓澈선사와의 禪問答 같은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다음은 「頭輪北庵寄尙上人」이다.

古寺僧無箇 옛 절이라 스님도 몇 명 없겠고
 秋山坐寂寥 가을 산 속 고요하게 앉아 있는데
 斜陽聽鐘磬 석양 속에 종 풍경소리 들리니
 溪路應未遙 시냇길서 응당 멀진 않겠소 그려⁸⁾

라고 하였으니 옥봉이 두륜산에서 수행하고 계신 尙上人에게 보낸 작품이다. 옥봉이 속세에 있지만 늘 禪家 스님들의 脫俗한 삶을 동경한 것을 느끼게 한다. 가을 산속에 고요히 앉아 있노라니 저녁 석양 속으로 은은한 풍경소리 들려오니 스님 계신 곳이 그리 멀리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은근히 스님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 주길 청하는 마음을 가려놓았다. 옥봉과 尙上人과의 儒佛不二 의 교류를 물처럼 고요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면에 바탕된 옥봉의 불교에 대한 의식세계를 작품

7) 李白, 『古文眞寶·前集』, 「山中問答」

8) 白光勳, 『玉峯集·卷上』, 「頭輪北庵寄尙山人」

을 통해 접하게 된다.

다음은 「海臨寺贈正仁師」이다.

江南蕭寺落花天	강남 이 절 꽃이지는 시절이라
十載遊蹤思渺然	십년 전에 노닌 자취 생각하니 아득한데
茶鼎午煙香室暖	차 끓는 솔 한낮 연기 향기론 방 따스해서
一山風雨閉窓眠	비바람이 온 산 처도 창 닫은 채 졸았었지 ⁹⁾

海臨寺 正仁 스님과는 십년이 넘는 교분을 나누고 있다. 십년 전 스님이 있는 절집에 찾아 갔을 때 꽃이 지는 늦봄이건만 산중이라 설렘함이 감돈다. 스님의 절집에서 한낮 茶를 달이며 있자니 밖에는 비바람이 불어도 스님과 禪茶의 禪定에 들었음을 詩化하였다. 옥봉의 시 속에서 유불을 두루 섭렵한 茶禪一味의 경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頭輪寺贈道演師」이다.

滿天風雨客來初	하늘 가득 비바람 속 손님 처음 찾아오니
一壁香燈禮佛餘	한쪽 벽엔 향등 불빛 예불 끝낸 뒤였는데
門掩碧峯雲暝盡	문 앞 가린 푸른 산봉 구름 온통 꺼버렸고
夜深無夢話金書	밤 깊도록 꿈도 없이 불경 얘기뿐이었네 ¹⁰⁾

두륜사에서 수행하는 道演스님에게 보낸 시이다. 어느 날인가 옥봉은 비바람 속에 두륜산 도연스님을 찾아 갔다. 절에 도착한 시각은 스님이 저녁 예불을 마친 즈음이었다. 저녁 어스름한 두륜산을 걸어보라. 그것도 두륜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며 목탁소리 들려오는 텅 빈 산중을 말이다.

이러한 시간 옥봉의 마음이 저절로 향한 것은 以心傳心の 道를 논할 벗을 찾는 일이었다. 두륜산 푸른 봉우리에는 저녁 안개가 짙어오고 默

9) 白光勳, 『玉峯集·卷上』, 「海臨寺贈正仁師」

10) 白光勳, 『玉峯集·卷上』卷上, 「頭輪寺贈道演師」

言 精進을 하시는 스님이라도 마음이 통하는 벗이 찾아왔는데 어찌 묵언을 하리오? 밤새 佛經이야기를 하며 저절로 談笑 三昧에 들었을 것이다. 누가 스님이고 누가 속세의 儒者란 말인가? 스님과의 단순한 신분을 초월한 교류뿐만이 아닌 學問과 道를 논하여 禪定三昧에 드는 옥봉의 교류 세계를 작품 속에서 찾아보았다.

다음은 「贈智衍上人」이다.

雲山發興却難裁	구름 낀 산 흥이 일어 문득 진정 잃어
十里都忘磴確來	십리길을 험한 산길 잊고 찾아 왔으니
正值詩僧新得句	시스님이 시구 새로 딱 맞춰 왔으니
入門松月間敲推	문에 들자 솔 달빛 속 ‘고’나 ‘퇴’나 묻는구나 ¹¹⁾

智衍스님에게 보낸 시이다. 안개가 감도는 산을 바라보니 그 곳에 있는 지연스님에게 가고 싶은 흥이 일어나 불현듯 가고 싶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십리길을 정신없이 찾아오니 스님이 詩句를 하나 얻어 옥봉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나무 사이로 내리비치는 달빛 속의 ‘敲’나 ‘推’냐고 묻는다.

이 작품 속에서 지연스님과 옥봉의 교류는 마치 당나라 韓愈와 賈島를 연상케 한다. 가도가 출가한 승려 시절에 無本이라는 법명을 갖고 있었다. 무본스님은 어느 날 길을 가며 “鳥宿池邊樹 僧推月下門”이라는 시구를 놓고 ‘敲’자를 놓아야 할지 ‘推’자를 놓아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한유의 행차를 만나 한유의 권유로 ‘推’자를 ‘敲’자로 바꾸어 줌을 받아들여 ‘推敲’라는 典故와 ‘一字師’라는 典故를 남긴 唐나라 儒佛 交遊의 대표적 실례이다. 뒤에 무본 스님은 환속하여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는데 한유의 ‘一字師’로 얻은 시구를 “二句三年得 一吟雙淚流”라고 했다고 한다. 위의 작품에서 보듯이 옥봉과 지연스님도 韓愈와 賈島처럼 서로 ‘一字師’로 섬기며 僧俗을 떠난 시인으로 수행자로서의 교유를 하

11) 白光勳, 『玉峯集』 卷上, 「贈智衍上人」

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백옥봉의 佛教詩 세계에서 佛家와의 交遊詩 세계를 고찰하였다. 많은 사찰과 그곳에서 수행 정진하는 많은 禪詩人들과의 交遊는 다름 아닌 詩와 禪이 不二라는 儒佛不二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봉은 유학자로서 시인으로서 佛家의 佛法과 僧侶의 禪趣와 교류하며 이러한 내면세계가 옥봉의 많은 시문학 작품에 폭넓게 남아 있음을 옥봉시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옥봉의 불교시 세계에서 儒佛의 反觀 시세계를 천착하기로 하겠다.

2. 儒佛의 反觀

‘反觀’이라는 용어는 유가 불가에서 쓰여진 문자로 문학작품 속에서 두루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불교의 禪詩를 공부하며 禪이라는 불립문자의 언어경지를 대변한 또 하나의 것이 ‘反觀’임을 오래전부터 모색해 왔다. 먼저 불가에서 반관의 의미를 ‘照顧脚下’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고각하’라는 말은 곧 반관의 의미로 바로 수행의 근본이 가장 시급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발밑을 살펴보는 데 있다는 뜻으로 겸허히 자신을 반성하여 바로 그 순간을 살피라는 뜻으로 간파할 수 있다.

이에 불가에서 수행하는 선사가 수행의 결과를 언어로 빚는 禪語에서 ‘조고각하·반관’이라는 언어를 빌어 불립문자의 경지를 표현한 선의 경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유가에서도 유불을 넘나드는 많은 道學者 또는 儒墨不二的 자세를 갖춘 못 시인들이 ‘以詩明道’의 세계를 표현함에 ‘반관’이라는 시어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¹²⁾ 이에 佛家의 得道의 경지와 儒家

12) 金美善, 「儒·佛의 反觀 詩世界」, 『韓國思想과 文化』 第48輯, 韓國思想文化學會, 2009, pp.101-103.

의 明道의 경지를 ‘反觀’이라는 시어를 통하여 백옥봉의 儒佛의 反觀 시 세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新居得石井」이다.

古石苔成縫	옛돌에는 푸른 이끼 께매 놓은듯
寒泉一白深	맑은 샘물 돌 우물을 깊이 팠구나
清明目如許	맑고 밝음 눈 속으로 들여다보듯
照我十年心	한해 일을 접쳐내는 내 맘 비추네 ¹³⁾

새로운 거처에 돌 우물을 얻고 쓴 작품이다. 石澗水는 맑은 차를 다려 마시기에도 좋지만 儒家 佛家에서 물을 수양의 매개로 삼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찰에 가면 우물이 있고 대부분 우물의 이름을 洗心井이라고 하였으니 물을 마셔서 단순히 갈증을 풀어 버리는 것이 아닌 마음의 미혹을 떨쳐버리고 貪·嗔·癡 三毒을 씻어버리는 수양의 매개물로 삼았다.

또한 선비의 띠풀집에 觀魚臺라는 이름의 연못 물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물고기를 기르는 연못에 아침 저녁 물고기의 유희를 감상하는 선비의 忙中閑을 의미하는듯 하지만 물 속을 들여다보며 自己 觀照의 克己工夫 일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옥봉이 새 우물을 얻고 물 속을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훤히 그대로 비친다. 이것은 그냥 비치는 것이 아니고 明鏡止水만이 가능한 것이다. 물속이 파도를 일으키면 어느 물상도 비춰 낼 수가 없지만 모든 흔들림을 쉬어버리면 애쓰지 않고도 삼라만상을 비춰내는 것이다. 옥봉이 맑고 밝은 우물을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훤히 비쳐지듯 내 맘도 비춰 본다 하였다. 이것은 옥봉의 시세계 일면이 佛家의 ‘조고각하·반관’이라는 언어를 빌어 불립문자의 경지를 표현한 선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13) 白光勳, 『玉峯集·卷上』, 「新居得石井」

다음은 「會津贈林監役愧」이다.

夜尋湖上村	밤이 되어 호숫가의 마을 찾으니
月照湖邊路	밝은 달은 호숫가의 길을 비추네
居人能說君	그곳 사람 능히 그대 말을 하리니
柳岸松爲戶	버들언덕 소나무로 문을 삼았다 ¹⁴⁾

羅州郡 侍郎面 會津에서 감역관인 임황에게 보낸 시이다. 옥봉이 밤이 되어 회진의 호숫가 마을로 임황을 찾았다. 때마침 밝은 달이 호숫가의 길을 비춰 옥봉의 詩心을 절로 불러 일으켰다. 불가에서는 月印千江이라하여 부처가 수많은 세상에 몸을 바꾸어 태어나 중생을 교화한 것이 마치 달이 천개가 넘는 수많은 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고 月은 眞理요 江은 衆生에 비유하여 하나의 진리가 널리 중생을 교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옥봉이 會津의 물가를 거닐며 물에 비치는 달을 그저 吟風詠月の 情緒로만 읊조렸겠는가? 千江에 비치는 달의 본체 眞理의 세계를 관조하며 버들언덕에서 소나무를 집 문으로 삼고 있는 벗을 松月에 비유하여 소나무와 같은 지조 절개와 천강에 두루 비치는 달을 통해 自己 觀照를 하는 유유자적한 걸음을 詩化하였음은 이 또한 옥봉의 觀照를 통한 ‘以詩明道’의 일면이라 하겠다.

다음은 「寄山人」이다.

羸形清夜抱幽沈	파리한 몸 맑은 밤에 그윽히 하니
孤月慙慙與照心	외로운 달 은근하게 마음 비추네
天外仙人遊不返	하늘 신선 노닐다가 오지를 앓고
鶴鳴何處碧雲深	학 울음은 푸른 구름 어디서 울까? ¹⁵⁾

14) 白光勳, 『玉峯集·卷上』, 「會津贈林監役愧」

15) 白光勳, 『玉峯集·卷上』, 「寄山人」

라고하여 山人에게 준 시이다. 山人이라면 道伴처럼 지내는 스님에게 보내 작품으로 짐작해 본다. 맑은 밤 기운이 심신을 더욱 수척하게 하는 듯 이러한 시심을 일으키는 밤에 산중에서 수행하는 벗을 생각하자니 孤月만이 은근히 나의 마음을 비추고 있다고 하였다.

옥봉은 산 수행자와 공간은 달리하지만 달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도 山中의 禪趣를 시로써 승화하고 있다. 鶴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그의 울음은 구천에까지 울린다고 하였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 수행자 모습이 공간의 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수행자의 번득이는 禪氣는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상대의 道力을 지극히 높이며 觀照의 침잠한 세계를 맑은 詩語로 빚어내고 있다.

다음은 「贈奉恩僧雲水」이다.

日暮驅驢度石橋	해질녘에 나귀타고 돌다리 건너니
遙聞微磬在山椒	멀리 들리는 풍경소리 산 끝에 있네
高僧不掃門前雪	큰 스님은 문 앞 눈을 쓸지 않았고
一點香燈照寂寥	한 줄기의 향연기만 고요 속 비추네 ¹⁶⁾

봉은사 雲水스님에게 보낸 시이다. 해질녘에 나귀를 타고 스님을 찾아 가자니 절은 보이지 않는데 멀리서 풍경소리가 들려온다. 절에 도착에 보니 한겨울 눈이 가득 내렸건만 스님은 문 앞 눈도 쓸지 않고 한줄기 향연기만 고요 속을 비추이고 있다고 하였다.

옥봉이 운수스님을 찾아갔지만 한겨울 문 앞 눈도 쓸지 않고 있다면 이곳은 俗人의 발걸음이 바빠 오가는 곳도 아니요, 또한 이곳에서 수행하는 수행도 俗世의 出入이 번잡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佛家の 禮佛文에서 五分法身香이 있다. 즉 戒香·定香·慧香·解脫香·解脫知見香의 다섯 가지로 줄여서 五分香¹⁷⁾이라고도 한다. 持戒의

16) 白光勳, 『玉峯集·卷上』, 「贈奉恩僧雲水」

17) 五分香은 부처님을 위시하여 모든 깨달은 분들이 갖추고 있는 광대한 무량 공덕을 의미한다.

香·禪定の香·知慧의 香·解脫의 香·解脫知見의 香 이 五分香 속에
 는 온갖 수행의 결과가 다 들어 있는 것이다. 불가의 三學의 첫째가 戒
 이고, 定香이란 照顧脚下의 관조의 실행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慧香
 은 지혜의 삶으로 삼학의 마지막이 慧이다. 戒와 定이 얻어지면 저절로
 慧가 열릴 것이다.

옥봉이 봉은사 운수스님을 찾아가니 문 앞 눈도 쓸지 않고 五分香禮
 를 닦으며 禪定에 들어 있는 운수스님의 수행에서 戒·定·慧의 反觀의
 수행력을 알아차렸으니 옥봉의 丙面에 자리하여 시의 언어로 빚어진 유
 불의 反觀世界이다.

다음에서는 백옥봉의 불교사에서 船子の 觀水 세계를 찾아보기로 한다.

3. 船子の 觀水

중국의 唐나라때 船子和尚으로 불리우는 冶父道川の 禪詩에서 漁父
 를 佛性을 닦는 수행자로 비유하여 읊은 悟道頌이 있다. 이를 선시의 세
 계에서 船子の 觀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국 선시의 최고의 작품으로
 말한다.

千尺絲綸直下垂	긴 낚시줄 물 아래 곧바로 드리우니
一波載動萬波隨	한 물결 일어나매 만 물결 이는구나
夜靜水寒魚不食	밤 고요하고 물 차가우니 물고기 아니 물어
萬船空載月明歸	빈 배에 밝은 달만 가득 싣고 돌아오네 ¹⁸⁾

라고 하였다. 詩情과 禪旨가 무르녹을 대로 녹아져 있는 작품이다. 어
 부가 낚시줄을 드리우자 한 물결이 만 물결로 일어남을 말하였다. 一波
 萬波의 경지인 것이다. 하나의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은 곧바로 천과만
 파가 되어지고 하나의 번뇌가 쉬어지면 천과만파가 다시 명경지수가 되

18) 『金剛經五家解』

어진다는 眞空妙有의 禪偈이다.

깊은 밤의 선정과 쉬어진 차가운 물결 속에는 고기도 낚시 바늘을 물지 않으니 船子는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온다라고 한 것은 法喜禪悅의 경지요, 禪과 詩의 일치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禪語의 극치인 것이다.

이러한 唐나라의 船子和尙의 수행의 경지를 옥봉에게서 그 一面을 찾아 옥봉의 불교시의 세계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贈漁父」이다.

煙生浦口店	물가 입구 어점에는 연기만 일고
罷釣滿縉風	낚시 끝난 낚싯줄엔 바람만 가득
天外夕陽盡	하늘 끝에 저녁노을 다 지고나자
歸帆山影中	산 그림자 속 돛배만 돌아오네 ¹⁹⁾

라고 하였다. 마치 治父道川の 船子詩를 보는듯하니 옥봉의 禪家的 禪趣를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어부에게 주는 작품이다. 물가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른다. 낚시를 파하고 돌아오는 어부의 낚시 줄엔 바람만 가득하다고 하였으니 眞空妙有요, 色空一如의 경지에 이른 船子漁父의 모습 같다.

저녁노을 다 지고 산 그림자 속으로 돌아오는 어부의 배 안에 달빛이 실려 있을 것만 같은 禪的 意趣를 느끼게 한다. 船子인 漁父가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는 것에 道의 구현을 비유하였다면 옥봉이 詩化한 漁父의 노래에서 당나라 船자와 같은 觀水의 求道 의지가 없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다음은 「江上」이다.

江深釣臺下	낚시하는 대 아래엔 강물이 깊고
天闊暮帆前	해 저문 돛대 앞엔 하늘 넓는데

19) 白光勳, 『玉峯集·卷上』, 「贈漁父」

隱隱鍾何自 은은히 종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나
遙知精舍煙 저 멀리 안개 낀 절 거긴걸 알겠네²⁰⁾

船子の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옥봉의 「江上」이라는 작품이다. 낚시하는 대 아래로 강물이 깊다. 佛性을 낚아 올리는 길에 대단한 정진력이 당연 필요하리라. 낚시대를 드리우고 觀水하며 종일 시간은 흘러 벌써 저녁이 되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에 하루가 저물었음을 문득 깨닫는다. 어부의 마음은 精進의 禪定에서 罷하여 돌아갈 길을 차비하니 깨달음의 공간이라는 妙處를 不明의 상태로 두어 漁父가 觀水를 통한 色空不二의 경지로 귀착됨이 읽어진다.

다음은 「鳳鳴亭下」이다.

長橋日映水如天 긴 다리엔 햇볕 따듯 물은 하늘 꼭 같은데
鶯囀孤城柳拂煙 피꼬리 우는 성엔 버들 안개 체질하니
最是江南好風景 강남에서 제일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라
釣磯深處倚竿眠 이 낚시터 깊은 곳서 낚ش대에 기대어 자네²¹⁾

옥봉이 강남에서 제일가는 아름다운 풍경의 봉황정 아래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다. 屈原의 「漁父詞」에서는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²²⁾이라고 하였는데 옥봉이 드리운 낚시는 漁父와 船子の 시대적 때를 마음으로 읽으며 道를 구현하려는 의지의 승화인 것이다. 낚시터에서 낚시대에 의지해 즐기고 있는 옥봉의 정신세계는 이미 한 경지를 초월한 낚시 바늘이 없는 낚시대를 드리운 강태공처럼 또는 밑 없는 배를 띄운 船子の 無底船의 경지인 禪味를 느끼게 한다.

다음은 백옥봉의 불교시에서 白雲의 無心 세계를 살펴보겠다.

20) 白光勳, 『玉峯集·卷上』, 「江上」

21) 白光勳, 『玉峯集·卷上』, 「鳳鳴亭下」

22) 『古文眞寶·後集』

4. 白雲의 無心

禪詩에서 靑山·白雲·無心 등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등장하는 詩語이다. 靑山과 白雲은 體와 用을 상징하여 靑山은 如如不動이요, 白雲은 自由自在로 禪修行을 하는 雲水衲子를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靑山은 오랫동안 절을 지키며 움직이지 않는 事判을 비유하기도 한다.

白雲은 본래 본체가 없기에 일체만물의 본체가 공한 假有임을 나타내고, 또한 수없이 자유자재한 起滅을 한다는 점에서 無爲無事한 가운데 逍遙自在하는 禪僧의 행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白雲은 회고 깨끗한 본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無心無邪의 淸淨한 禪心의 표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白雲은 無心無邪한 선시적 심상을 지닌 것으로 곧 無心이란 不見, 즉 일체의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무분별의 경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심의 경지를 般若 智慧를 증득하였다 하는데 白雲과 無心의 眞空妙有의 자리인 ‘空’을 터득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옥봉의 시 속에서 白雲과 無心을 佛家의 禪的 意趣를 통해 접근해 보기로 한다.

먼저 「贈太尙上人」이다.

小屋隱松林	조그만 집 솔숲 속에 숨은 듯 있어
客來山夜深	손님오고 산속 밤은 깊어졌건만
無心雲共宿	무심히 구름과 함께 자다가
有句鶴同吟	시 떠오르면 학과 함께 울더군요 ²³⁾

태상상인에게 준 시이다. 태상상인이 조그만 집 솔숲 속에 숨은 듯 있다고 하며 스님의 수행과정이 순수하고 진실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스님임을 암시하는 말한다. 스님의 수행처에 俗人인 내가 찾아와 보니 물

23) 白光勳, 『玉峯集·卷上』, 「贈太尙上人」

리적인 시간으로 밤이 되었는데 태상스님은 無心히 구름과 함께 잠을 자다가 시가 떠오르면 학과 함께 읊조린다. 이러한 스님의 수행과정을 시로 지어 보내어 스님의 높은 수양경지를 기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 쓰여진 無心은 俗人이 찾아 왔는데도 세상일에 아무런 걸림이 없이 無分別地의 절대 자유의 경지에 흔들림 없는 모습이다.

선수행 자체가 不立文字이지만 태상상인은 시인 옥봉과의 무심한 교류를 통해 禪句를 얻어 무심히 시만 읊조리니 스님과 함께 사는 鶴만이 스님의 시구를 알아듣노라 하였다. 俗人의 벗이 찾아가 봤지만 스님의 如如한 정진은 無心하기가 如如하니 스님을 鶴처럼 깨끗하고 고고한 모습에 비유하였다. 옥봉의 마음도 그러한 禪趣에 젖어 저절로 승속의 공간을 오갔으니 태상상인의 경지인 處染常淨의 경지가 작품 속에 담겨져 있다.

다음은 「山寺口占」이다.

禪房寂寂晚雲侵	선수행처 적료하니 구름만 일고
睡起虛簷細竹吟	졸음 깨니 빈 처마엔 댓잎 울리네
詩罷却尋門外路	시 다 짓고 문밖 길을 찾으려 하자
靑山無語水無心	푸른 산은 말이 없고 물도 무심하네 ²⁴⁾

옥봉이 山寺에서 지은 禪詩이다. 禪房이 寂寂한채 구름만이 인다 했으니 불가에서는 “父母未生前 本來面目”의 자리를 一心寂寂이라 한다. 圓融無碍한 선방의 경지를 고려 때 普照國師知訥은 『眞心直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若人靜坐一須臾	만약 사람이 잠깐이라도 참선에 들면
勝造恒沙七寶塔	모래알만큼의 칠보탑 쌓는 것보다 나으리
寶塔畢竟碎爲塵	칠보탑은 마침내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一念淨心成正覺	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달음 얻으리라. ²⁵⁾

24) 白光勳, 『玉峯集·卷上』, 「山寺口占」

라고 하였으니 參禪功德을 잘 알 수 있는 說法이다. 옥봉은 산사 선방의 寂寥한 수행처에서 구름만이 걸림 없이 오고가는 것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參禪三昧에 들어 처마 끝에 울리는 대나무 잎 부딪히는 소리에 破禪을 한다 하였다. 고요한 寂靜處에서의 入禪이나 댓잎의 소리로 禪定에서 깨어남이나 不二的 경지인 것이다.

그러한 禪定을 옥봉이 시붓을 내달려 엮어내고는 다시 본래의 자리 俗家로 돌아 오려하니 靑山은 말이 없고 물도 無心히 흐른다고 하였다. 오고감에 걸림 없는 儒佛交遊이기에 때지나 머물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 靑山처럼 또는 白雲 같은 禪味를 그의 작품에서 佛敎詩의 영역으로 찾아본다. 다음은 「贈僧」이다.

十年踪跡海東西	십년동안 바다 동쪽·서쪽을 떠돌다가
歸臥南山是舊棲	남산 돌아와 누우니 여기가 바로 옛 집인데
擺却多生眞著眼	그 많은 삶 다 툇 털고 참는 여겨 보게 될 건
白雲千嶺月千溪	수천 산령 흰 구름과 수천 시내 달빛일세 ²⁶⁾

스님에게 보낸 시이다. 십년이 넘도록 여기저기를 떠돌다 옛집에 돌아와 보니 이제 비로소 세상만사 다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나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낮에 보이는 풍광의 수천 산봉우리와 자유자재한 흰 구름이요, 한밤중 수천 시내로 비추이는 달빛뿐이라 하며 山中의 스님에게 깨달음의 한소식을 부친다. 인간의 부귀영화며 모든 萬象은 無常일 뿐이고 절대자유 진리는 자연임을 깨치는 소리이다. 옥봉이 시인으로서 吟風詠月の 主情的 唐詩風을 숭상하여 당시풍에 거의 휩박했다고 제가의 평을 받는데 이러한 옥봉의 작품 안에는 唐나라의 불교 전성기를 이룬 시기의 李白·王維 등의 禪家的 시풍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하였다.

25) 知訥, 『眞心直說』, 「眞心功德」

26) 白光勳, 『玉峯集·卷上』 卷上, 「贈僧」

이상과 같이 백옥봉의 불교시 세계를 ‘佛家の 交遊·儒佛의 反觀·船子の 觀水·白雲의 無心’으로 세분하여 삼당과 옥봉의 시세계를 다루는데 있어 불교시의 영역이 惺惺히 드러나 있음을 고찰하였다.

IV. 結論

이상과 같이 三唐派 白玉峯의 佛教詩 世界를 고찰하였다. 唐詩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시풍을 송시풍에서 당시풍으로 정착시킨 옥봉의 시세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唐詩의 사상적 배경이 佛教가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천착하여 삼당과 옥봉의 시세계에서 불교적 사유의 세계를 찾아보고자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방향으로 설정하였다.

唐詩의 風格을 수용한 삼당과 시인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 李白·杜甫·王維 등에 귀결하게 된다. 당나라는 중국 불교의 유례없는 황금시대였다. 天台宗의 智顛·三階敎의 信行·三論宗의 吉藏·南山律宗의 道宣·法相宗의 玄奘과 窺基·淨土宗의 法藏 澄觀·禪宗의 六朝 慧能 등 이름만 들어도 禪修行과 禪詩의 큰 업적을 남긴 스님들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중국 불교사에서 당나라 불교를 빼놓을 수 없듯 불교가 왕성한 시대적 배경에 詩仙으로 불리워진 李白과 詩佛로 불리워졌던 王維의 시풍에는 佛教와 禪의 세계관이 작품 곳곳에 녹아져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기존의 옥봉시 연구는 삼당과 시인으로서 唐詩의 詩風을 잘 본받아 唐詩와 섞어 놓아도 구분할 수 없는 경지의 면모들을 면밀히 고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李白·王維의 禪詩의 세계관에 근접한 禪趣的 佛教詩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본 논고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 옥봉의 불교시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시문학사에서 儒佛交遊의 詩意識을 고찰하였다. 불교와 유교를 대립적이거나 배타

적으로 여기지 않고 儒佛不二的 融涉을 보여준 “跡禪而心儒者·跡儒而心禪者”의 자취를 우리 漢詩史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선현의 시문학 작품 속에 배경이 된 사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론에서 이러한 儒佛交遊의 詩意識을 바탕으로 백옥봉의 시세계에서 佛敎의 禪趣가 담긴 시세계를 ‘佛敎의 交遊·儒佛의 反觀·船子の 觀水·白雲의 無心’으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佛家의 交遊 세계에서 고찰하여 보니 백옥봉의 작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교유시로서 대부분은 僧侶와 交遊한 작품들이었다. 옥봉의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찰로는 白蓮社·寶林寺·雙溪寺·奉恩寺·岡泉寺·頭輪寺·北辰寺·西林寺·蓮臺菴·蓮花菴·定惠寺·海臨寺·弘慶寺·北庵·剛川寺·洛山寺 등이 있었다.

이곳 사찰에서 수행한 승려와 시를 수창한 衲子들은 思峻·道演師·信堅·尙上人·衍上人·修上人·雪峻·印思·性元·太尙上人·義衍師·秀華沙彌·行思上人·處敏上人·天鑑·處英上人·道文上人·弘印上人·圓澈上人·正仁師·桂熙·智衍上人·水澄·靈印長老·雲水·天靈·安上人·靜安上人·佛慧長老·雪洵上人·片雲上人·性眞師·圓澈·智楫·元上人 등의 35여명의 승려가 되었으니 당연 옥봉의 시 속에는 승려와의 교류에 매개가 된 佛敎思想을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佛敎의 反觀에서는 유가에서도 유불을 넘나드는 많은 道學者 또는 儒墨不二的 자세를 갖춘 못 시인들이 ‘以詩明道’의 세계를 표현함에 ‘반관’이라는 시어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옥봉의 작품 속에서 볼 수 있었다. 불가에서 수행하는 선사가 수행의 결과를 언어로 빚는 禪語에서 ‘조고 각하·반관’이라는 언어를 빌어 불립문자의 경지를 표현한 선의 경지를 禪詩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佛家의 得道の 경지와 儒家의 明道の 경지를 ‘反觀’이라는 시어를 통하여 백옥봉의 儒佛의 反觀 시세계를 모색하였다.

船子の 觀水에서는 중국의 唐나라때 船子和尙으로 불리우는 冶父道川の 禪詩에서 漁父를 佛性を 닮는 수행자로 비유하여 읊은 悟道頌이

있음을 바탕으로 하여 옥봉의 시세계에 표현된 드리운 낚시는 漁父와 船子の 시대적 때를 마음으로 읽으며 道를 구현하려는 의지의 승화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한 경지를 초월한 낚시 바늘이 없는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처럼 또는 밑 없는 배를 띄운 船子の 無底船의 경지인 禪味를 느끼는 작품들을 천착하였다.

白雲의 無心에서는 白雲은 無心無邪한 선시적 심상을 지닌 것으로 이러한 무심의 경지를 般若 智慧를 증득하였다 하는데 옥봉의 시에 곳곳에 白雲과 無心이 있다. 眞空妙有의 자리를 옥봉은 작품 속에서 ‘空’을 터득한 소식으로 전하고 있으니 옥봉의 작품에서 白雲과 無心の 상징어인 佛家の 禪的 意趣를 확연히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禪家の 佛教禪詩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으며 옥봉 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자의 작품에서도 불교의 禪旨가 담겨져 있는 것에 관점을 두어왔다. 옥봉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불교와 불가의 선승들과의 교류에서 빚어진 많은 작품들이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천착되어지지 않은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였다. 한 작가의 작품을 온전히 고찰하기 위하여는 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두루 통해야만 원만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唐詩의 사상적 배경과 우리나라 三唐派 시인의 작품 배경이 되는 사상의 일면을 불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옥봉의 시에는 많은 불교적 선취가 들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三唐派 시인 중에 玉峯 뿐만 아니라 孤竹·蓀谷의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佛教詩에 대한 조명을 후고로 두며 불교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대한다.

<參考 文獻>

- 白光弘, 『岐峯集』, 경인문화사간, 1991.
- 白光勳, 『玉峯集』, 한국문집총간 47, 해동문화사영인, 1985.
- 李 達, 『蓀谷集』, 해동문화사영인, 1985.
- 李晔光, 『芝峰類說』, 아세아문화사영인, 1973.
- 崔慶昌, 『孤竹遺藁』, 한국문집총간 50, 해동문화사영인, 1985.
- 洪萬宗, 『詩話叢林』, 태학사, 1993.
- 金美善, 「艸衣 張意恂 詩의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 「艸衣禪師의 禪茶詩」, 이화출판사, 2004.
- , 「映湖禪師의 禪詩」, 中國: 聊城大學學報, NO.6, 2005.
- , 「韓國的 中國禪詩 受容美學」, 中國: 齊魯學刊, 2006.
- , 「儒·佛의 反觀 詩世界」, 『韓國思想과 文化』 第48輯, 韓國思想文化學會, 2009.
- , 「龍潭 禪師의 禪詩」, 『한자한문교육』 2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9.
- 김영국, 「玉峯 白光勳의 詩 研究」, 원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종서, 「玉峯 白光勳 詩 研究」,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한국한문학회 엮음, 『한국한문학과 미학』, 태학사, 2003.

Abstract

三唐派 Paek Okbong's the world of Buddhism Poetry / Kim Mi Seon*

A poetical style i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was formed the mainstream of the Song dynasty's poetic style including Su Dongpo. From a year of King Seongjong, especially the Gangseo poetical style dominated momentarily even out of Song dynasty's poetic style. Since now, a study of Paek Okbong's has studied with a lot of interesting from people who are major in poetry literature.

This report considered about the world of Buddhism poetry from a poet of 三唐派 Okbong Paek Kwang-hun's(1537-1582)'s poetry world. Okbong is the main person who worked on positive lines in history of Korean poet's Mokneungseongse, when turning point from 宋詩風 to 唐詩風, he aggressively accepted 唐詩風 at the time of psychological, political background.

So, this is a main point of this report; previous study of Okbong's poetry had deeply considered the sides of stage that strongly emulate of 唐詩風's as a poet of 三唐派 and couldn't classify even mixed up with 唐詩, but not considered the study of Buddhism poetry.

Based on these backgrounds, I tried to approach to world of Okbong's poetry newly which is not considered before through contemplate and divide his poetry as 交遊 with monks, 反觀 of Buddhism.

【Key words】 Okbong's , Paek Kwang-hun's, Buddhism Poetry, poetry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5월 20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

* Professor of cheongju Univ. / hawoodang@hanmail.net